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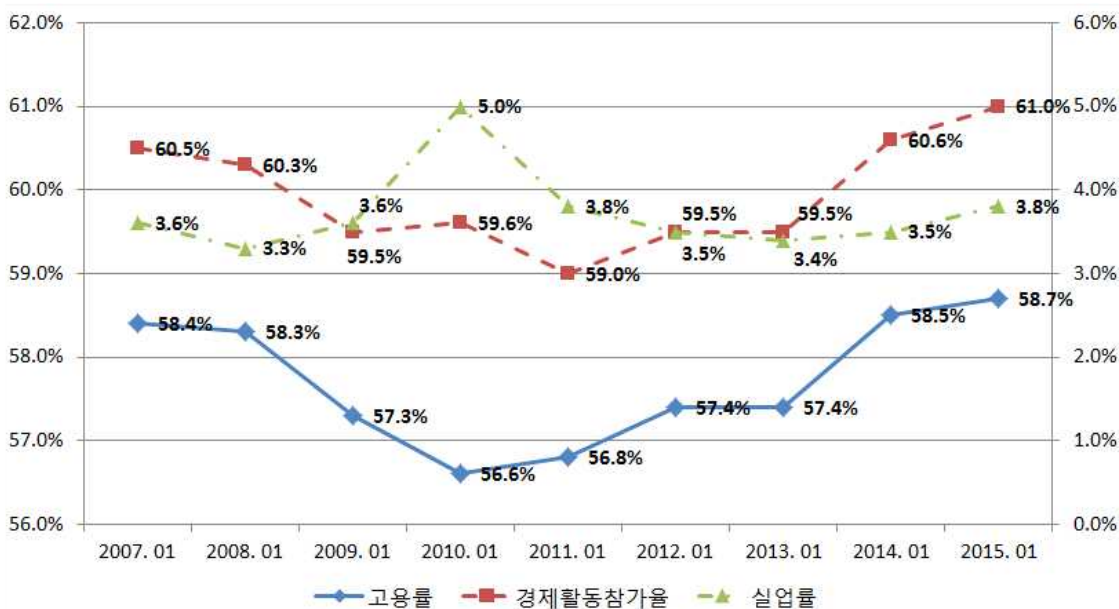
2015. 2.22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개선 수준의 정도에 있어서는 전년동월 수준에 못 미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1월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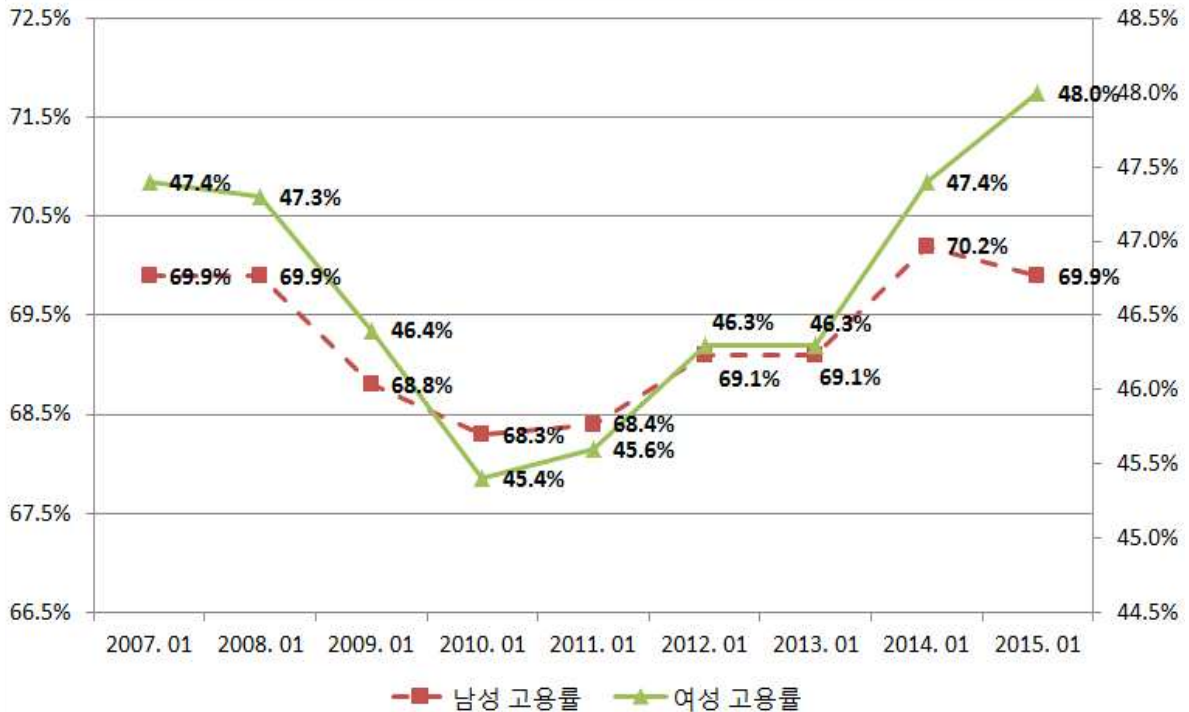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69.9%, 여성 고용률은 48.0%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은 50%를 넘었던 2014년 후반기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임. 하지만 이는 시기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전년동월에 비해 0.6%p 상승한 것임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 각 연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과 2015년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9%p 상승, 0.3%p 하락이라는 변화를 보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1.1%p,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의 지나친 확대도 문제지만,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 장기적으로 여성 고용률 증대라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1월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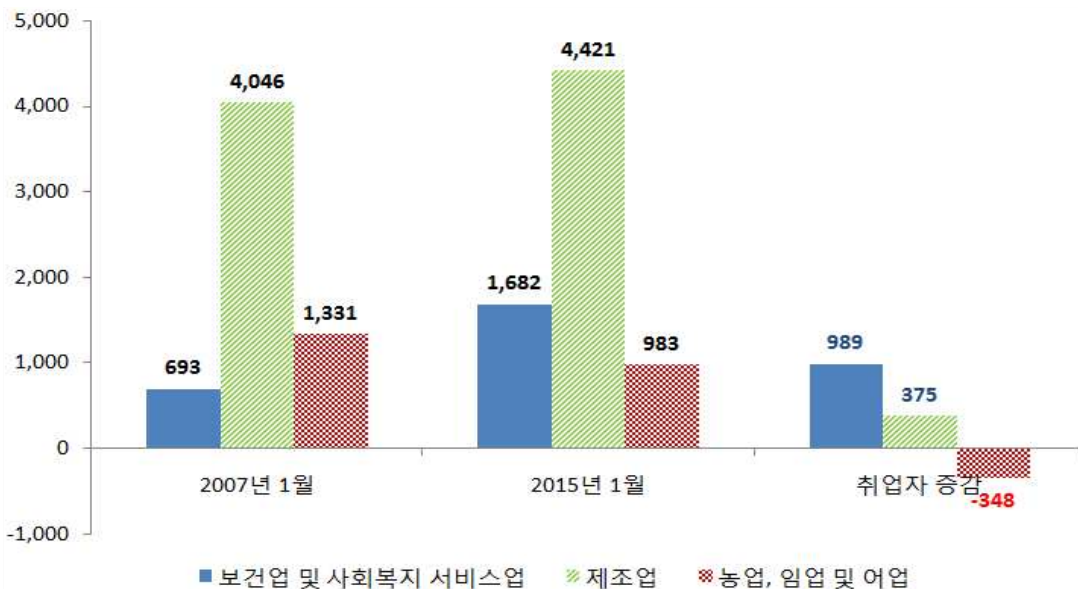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7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 후반기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만 8천 명), 제조업(14만 1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6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7만 6천 명), 건설업(7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6만 5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1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2015년 1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68만 2천명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수요의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위기 전후 4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1월 현재 제조업 종사자 수는 442만 1천 명임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줄어들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월 133만 1천 명이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월에는 98만 3천 명으로 나타남. 해당 기간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98만 9천 명, 제조업은 37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34만 8천 명이 줄어들었음
- 농림어업과 함께 금융 및 보험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도 최근 지속되고 있음

그림 3.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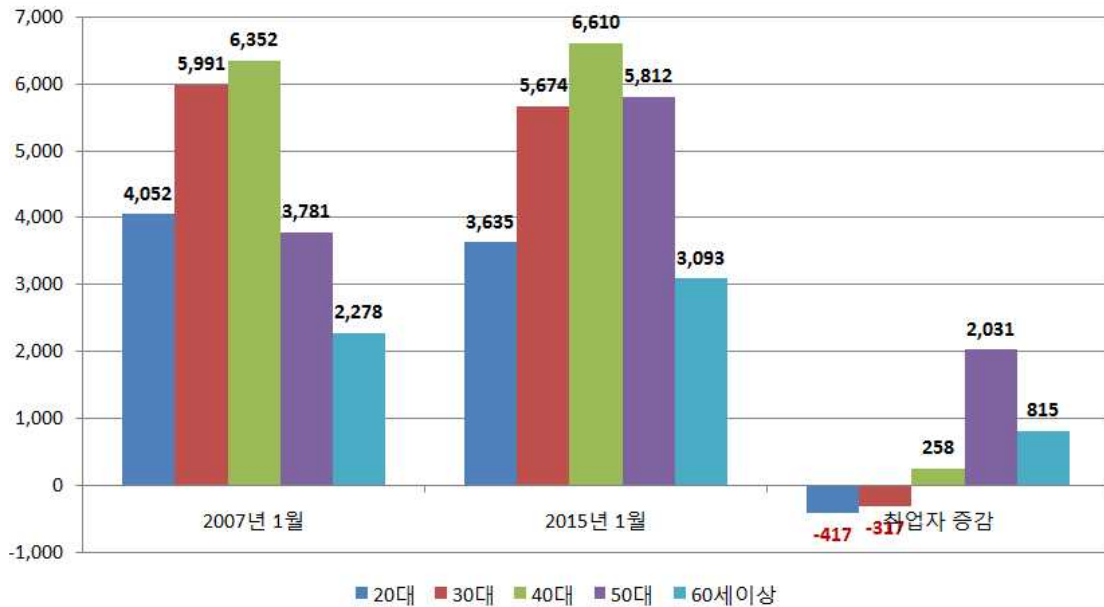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3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47만 5천 명으로 22만 5천 명 증가함.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연령계층별로 최근 몇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9만 1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7만 4천 명이 증가함.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만 7천 명, 2만 7천 명 감소함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은 57.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청년 취업자 감소 및 고용률 하락 추세는 멈추었지만, 여전히 청년고용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4. 연령계층별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7천 명 증가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3.8%임
- 하지만 실업자와 함께 잠재경제활동인구<sup>1)</sup>,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sup>2)</sup>를 광의의 실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여기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3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며, 잠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업자를 보고, 이들 광의의 실업자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광의의 실업률(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sup>3)</sup>)은 11.9%로 나타남

- 이는 현실에서의 실업 문제가 실업률이 나타내는 것 이상일 수 있음을 의미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668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71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1,096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3천 명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던 여성들 중 일부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그림 5.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비교, 각 연도 1월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좌측 축,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우측 축 참조

- 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취업이 가능한 자
  - 3) 용보조지표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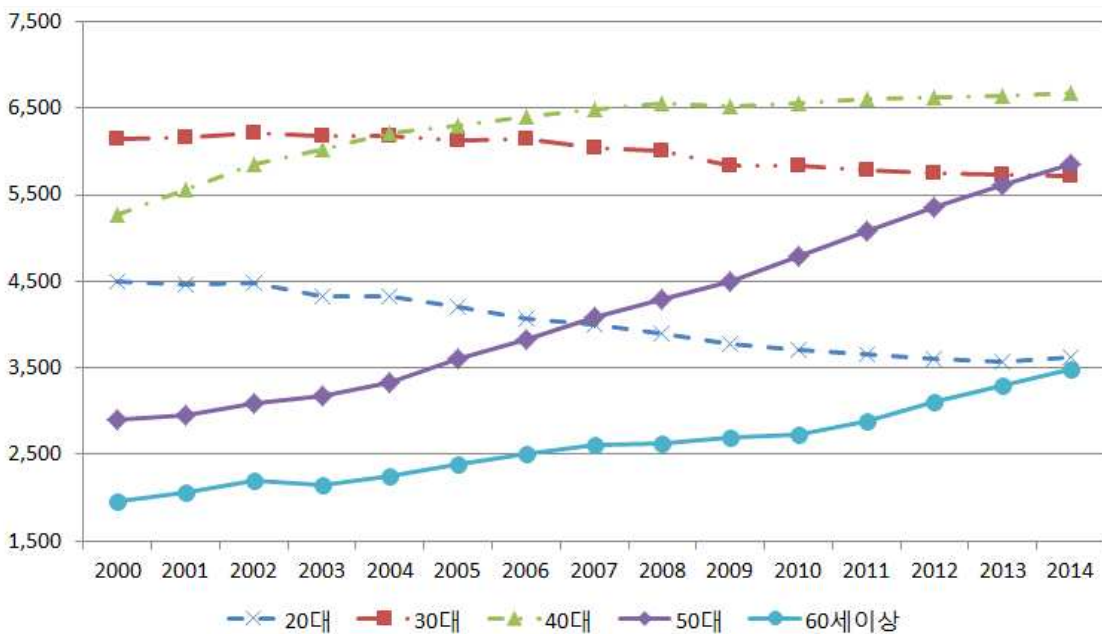


## 늘어나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성

### □ 중고령 노동자들 규모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50대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보인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

그림 6.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대	4,490	4,486	4,320	4,061	3,894	3,710	3,612	3,625
30대	6,137	6,212	6,181	6,136	6,010	5,833	5,756	5,714
40대	5,277	5,856	6,206	6,407	6,548	6,553	6,622	6,682
50대	2,899	3,098	3,334	3,835	4,300	4,792	5,353	5,845
60세이상	1,963	2,204	2,257	2,503	2,636	2,737	3,108	3,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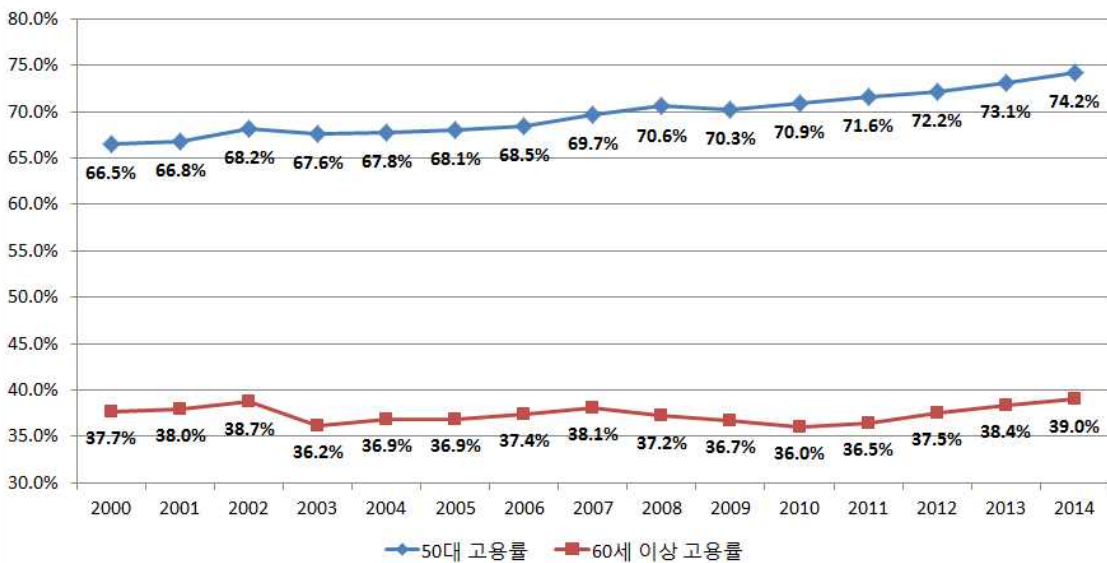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50대 취업자 수는 30대 취업자 수를 앞질러 40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취업자의 수는 20대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음
-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 원인으로서는 우선 중고령 인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음. 최근 중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중고령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중고령 인구의 증가만으로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를 설명할 수는 없음. 중고령층 취업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고용률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인구증가 속도보다 취업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중고령 인구 증가 외 다른 이유들도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나아진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건강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령층에게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노동공급 측면의 현실이나, 중고령층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의 증대를 가져온 노동수요 측면의 현실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 7. 50대와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중고령 일자리 특성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60세 이상 일자리의 경우 상당히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년 8월 현재 6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22만 5천원 밖에 되지 않음. 특히 비정규직<sup>4)</sup>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음

4) 여기서는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인 임금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하고 있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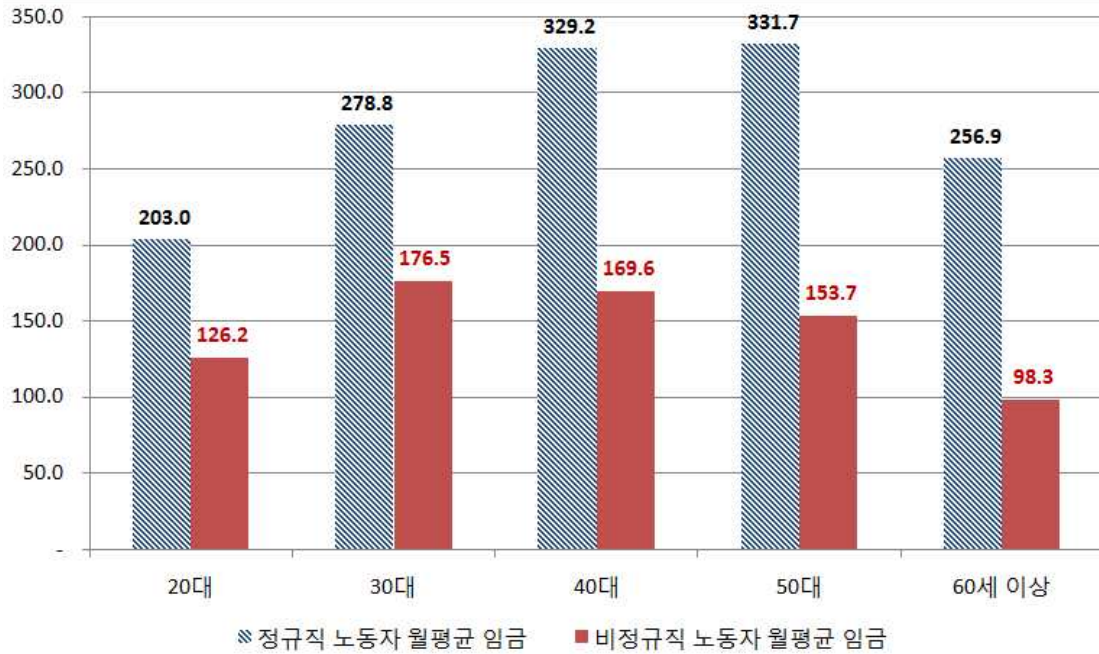
표 2.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166.6	247.5	267.0	243.1	122.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 중고령층 중 50대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이 225만 2천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이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한국의 임금구조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임
- 실제 근속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50대 이상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많지 않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연령대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 (단위 : 만 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 또한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년 8월 현재 5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9.8%이며, 6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84.7%나 차지하고 있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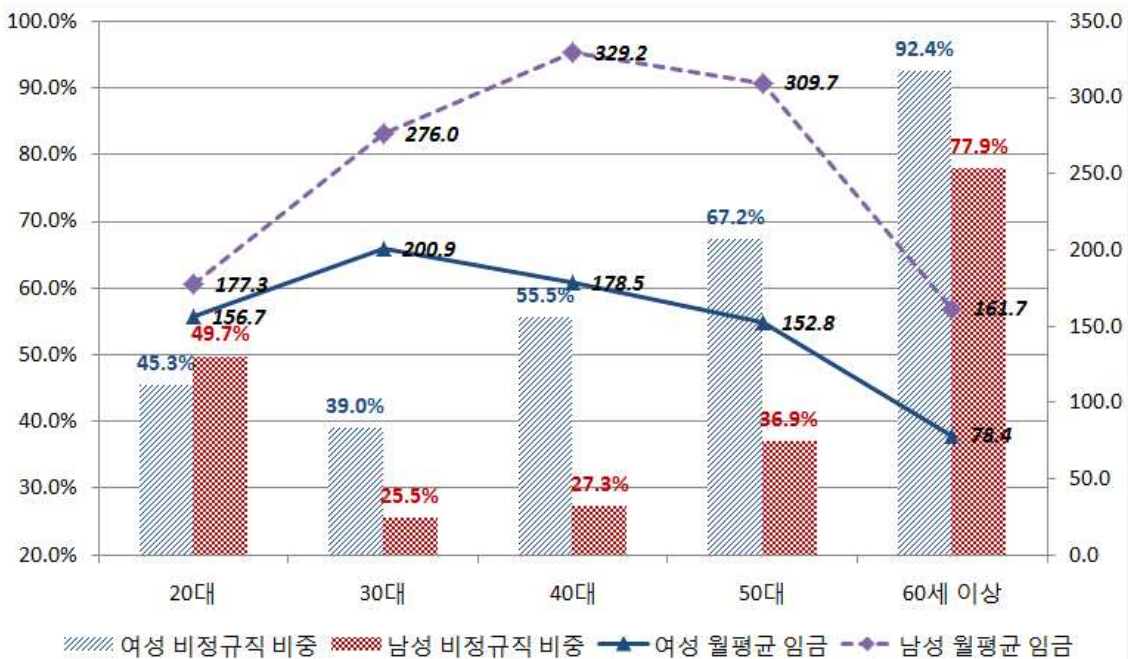
표 3.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노동자 비중	52.6%	69.4%	61.0%	50.2%	15.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며, 임금수준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들은 고용불안정,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큼

그림 9. 성별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만 원)



※ 비정규직 비중은 좌측 축, 월평균 임금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현실은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음을 가리킴
- 소득을 올릴 수 없었던 중고령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며, 중고령층에 대한 순수한 복지비 지출을 완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하락을 가져오는 한편,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인해 여전히 빈곤 등의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큰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내 더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정부 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